

“농촌자원 활용 무한 가치 창출하겠다”

최재중 한국치유농업협회 장성군지회 위원장

고향 귀촌 후 잔디밭 활용 융복합 사업 시도 장성 농업인프라 무궁한 치유농업 발전 가능

“차 잔잔을 마셔도 편하게 농촌 향기를 느끼며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치유 농업입니다.”

최재중 (42) (사)한국치유농업협회 장성군지회 위원장은 “치유농업이란 말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면서 “원예치유나 산림치유 등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큰 개념의 용어가 치유농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치유농업협회 장성군지회는 지난 5월15일 창립한 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하며 2020년 3월

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2021년 5월에 시행돼 아직은 전국 화되지 못하고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한 분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치유농업협회는 올해부터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데 지자체에 설립된 곳은 광주지역본부와 더불어 양주시, 연천군, 용인시, 나주시 그리고 장성군 등 6개 정도다.



최 위원장은 20여년 간 사격 선수와 감독을 지냈으나 현대 도시 생활에 오는 삶의 불안감으로 미래

를 준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고향인 장성으로 귀촌했다. 귀촌 후 잔디 농업을 하면서 잔디 채취와 잔디밭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을 꿈꾸게 됐다.

그러면서 함께 뜻이 맞는 15명의 회원들이 규합, 최근에 장성군에 독자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치유협회를 만들었다.

회원들은 농장 경영자를 포함, 심리학, 서각 예술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년 전부터 모임을 갖고 연구활동을 거듭하며 치유농업을 연구해 왔다.

그는 치유농업을 ‘무한한 상상력의 산업분야’라고 표현했다.

최 위원장은 “장성은 편백숲을 비롯해 잔디와 황룡강 꽃강 등의 농업인프라가 충분히 무궁한 치유농업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음식 산업, 동물 복지산업, 곤충 활용 치유 등 상상 이외의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논두렁에 풀을 대신해 꽃씨를 뿌려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했다. /오복기자

우인혁 목포해경 서산과출소 순경 음식물에 기도 막힌 남성 구해



신임 해양경찰관이 목포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힌 남성을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목포해양경찰서 서산과출소 소속 우인혁(29) 순경이다.

우 순경의 선행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에 의해 주변에 알려졌다.

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 순경은 지난달 19일 오후 1시께 목포에 있는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옆 자리에 있던 A씨가 목에 음식물이 걸려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시 가족과 함께 식사 중이던 우 순경은 A씨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으며 비명으로 나가는 상황을 보고 위급한 상황을 직감해 곧장 뒤따라가 ‘하임리히법’을 실시, 약 1분 만에 목에 걸려 있던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후 우 순경은 A씨의 상태를 살피며 건강 상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욕하러 자리를 떠났다.

우 순경은 지난 2월 임용된 새내기 해양경찰관으로 현재 목포해경 서산과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때 흉부를 압박하며 이물질을 긴급하게 제거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우 순경은 “해양경찰 신임 교육시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응급처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셔서 오히려 쑥스럽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적십자 광주지사, 취약층에 여름이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광주전남지역 재난취약계층 400가구에 폭서대비 ‘쿨한 여름 이불 세트’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광주전남지역 내 희망봉자 결연세대 400가구에 이불을 직접 방문 전달하고 건강 체크 및 기본 생활환경도 함께 점검했다.

적십자 희망봉자 결연세대란 적십자 봉사원이 거주 중인 지역의 취약계층과 1:1 결연을 맺어 물품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정서 지원을 하는 구호사업을 말한다.

광주전남적십자사는 결연 봉사원이 주기적으로 세대를 방문해 생활용품과 구호용품 전달 및 심리지원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불을 전달받은 홀몸 어르신은 “적십자에서 매년 찾아와 안부 이사를 전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줘 고맙다”며 “올 여름 시원한 이불로 건강하게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디인기자



전남대병원, 미안마 난민 식수 정화제 지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안마 난민들에게 지난 해 성금을 모아 전달한데 이어 이번엔 의료안정 강화를 위한 물품을 지원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5일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안영근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이태운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미안마 쿠데타 난민 물 정화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전남대병원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살균소독 처리가 가능한 식수 정화제 3만개(347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기획·조사인원 및 취재기자 등과 함께 오는 11-18일 미안마의 난민캠프 등을 방문해 식수 정화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영근 병원장은 “미안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미안마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전남대병원은 직원들의 성금전달과 난민들을 지원하는 매타오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미안마와 인연이 깊은 만큼 앞으로의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상무수치과, 고려인마을 아동옹호사업 후원금 전달

김수관 대표원장 “아이들 돕는 활동 지속”

상무수치과(대표원장 김수관)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현미), 사단법인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아)은 최근 상무수치과에서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및 아동옹호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후원금 700만원은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에 소속돼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기공연 및 단복 구입비, 간식비를 포함한 광주지역 아동옹호사업에 지원된다.

김수관 대표원장은 고려인마을에 현재까지 약 1억원 상당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2018년부터 고려인마을 치과의료지원 단장으로 활동하고 2020년 광주 고려인마을에 종신보험 1호 약정서 기탁과 함께 광주새날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마을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했다.

또 김 대표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회원이자 유산기부자모임인 ‘그린레거시클럽’ 광주 1호 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광주 37호 회원,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아너

클럽’ 광주전남 10호 회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 기부액만 15억원에 이르며 국내·외 치과치료 봉사, 무료 임플란트 수술 지원, 장학금 지원, 돌봄이웃 긴급의료비 지원 등 누적 사회공헌활동 후원금이 22억원으로 꾸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김수관 상무수치과 대표원장은 “어린이들은 어느 지역과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보호 받아야 하며, 아동으로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나눔의 가치에 공감해 주시고 지역과 해외에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김수관 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옹호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디인기자



여수시·여수산단공발협, 장수사진 촬영·보급 지원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올해 동행 프로그램 사업 중 하나인 도시지역 장수사진 촬영·보급 지원 사업을 펼쳤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는 7일 “장수사진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단독세대,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 우선순위로 정하고 마을 이장과 인근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촬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촬영장은 정감있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연히 옆 마을에 미용 봉사를 하던 박성미 여수시의원 일행이 장수사진 촬영하는 걸 보고 화장을 도와주면서 사진 촬영에 참여했다.

박성미 의원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공발협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한 어르신은 “평소 장수사진을 찍어두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지만 쉽게 찍으려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고 자랑 제공까지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촬영에 협조한 박정명 이사장은 “부모님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라며 “부모님의 모습과 마음까지 정성스럽게 렌즈에 담아 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진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아직도 장례식장에서 사진이 없어 급하게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과 어른을 공경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촬영한 사진은 추후 어르신들에게 액자로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여수=김진성기자



영광연합학생회, 리더십 캠프·제주 역사탐방

영광교육지원청은 7일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영광연합학생회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제주도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더십 캠프·역사탐방 프로그램은 2박 3일 동안 관내 초·중·고 영광연합학생회 18명이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캠프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했다.

영광연합학생회 학생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해 리더의 자질과 역할, 학교생활 중 리더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영광지역 선배들이 제주도에 방문해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DL케미칼 협약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이하 환경공단)는 7일 “최근 DL케미칼과 ‘K-자원순환경제형 영농폐기물 전용 수거봉투 보급 협약’을 환경공단 사무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공단이 재활용 원료와 DL케미칼의 신재 원료를 사용해 제작한 전용 수거봉투를 사용해 폐농약용기 내 잔류 농약 누출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폐농약용기와 수거봉투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존의 폐농약용기 수거에는 마대자루나 그물망 등이 주로 사용돼 용기 내 잔류 농약 누출로 인한 2차 토양오염의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마대자루는 농약용기와 다른 PP(폴리프로필렌)로 만들어져 PE(폴리에틸렌)로 만들어진 농약용기와 함께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전용 수거봉투는 투명한 잔류 농약 유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질의 특성상 잔류 농약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또한, 농약 용기와 동일한 PE로 만들어져 재활용 역시 용이하다. 전용 수거봉투 제작에는 D

했다.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AR·VR을 체험해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됐고 정크아트를 통해 지구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쓸모없는 자원이 예술품으로 바뀔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체험을 했다.

또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제주 4·3기념관을 방문해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근 영광교육장은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리더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됐다”며 “학생들이 영광 영광지역 선배들이 제주도에 방문해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L케미칼의 친환경 기술 제품인 D.FINE를 적용하여 재활용 원료 사용률을 70%까지 높여 친환경성 역시 대폭 제고했다.

DL케미칼 유휴사업본부 김길수 부사장은 “D.L케미칼의 친환경 기술력에 보내주신 환경공단의 신뢰에 감사하다”며 “DL케미칼은 앞으로도 D.FINE 등의 친환경 제품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구조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공단 송재식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 전남,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의 폐농약용기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공단 역시 친환경 자원순환 구축을 위해 공단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호남대,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AI교육 자문

호남대학교 AI빅데이터연구소(소장 백란)는 최근 교내 학술정보원 원장실에서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센터장 신성래)와 발달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한 인공지능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개발 및 IT분야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인공지능교육과정 구축 지원 회의를 진행했다.

호남대학교 AI빅데이터연구소는 그동안 영남권역 대학에 지원했던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보건 등 AI 활용 창의융합프로그램과 단대별 맞춤형 AI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을 비롯해 나주교육청과 공동추진하고 있는 훈련형 AI교실 추진 경험을 토대로 광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 리더십 교육과 취업전략모델 구축에 협력할 방침이다.



백란 소장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교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하는 등 호남대학교가 지역사회 인공지능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